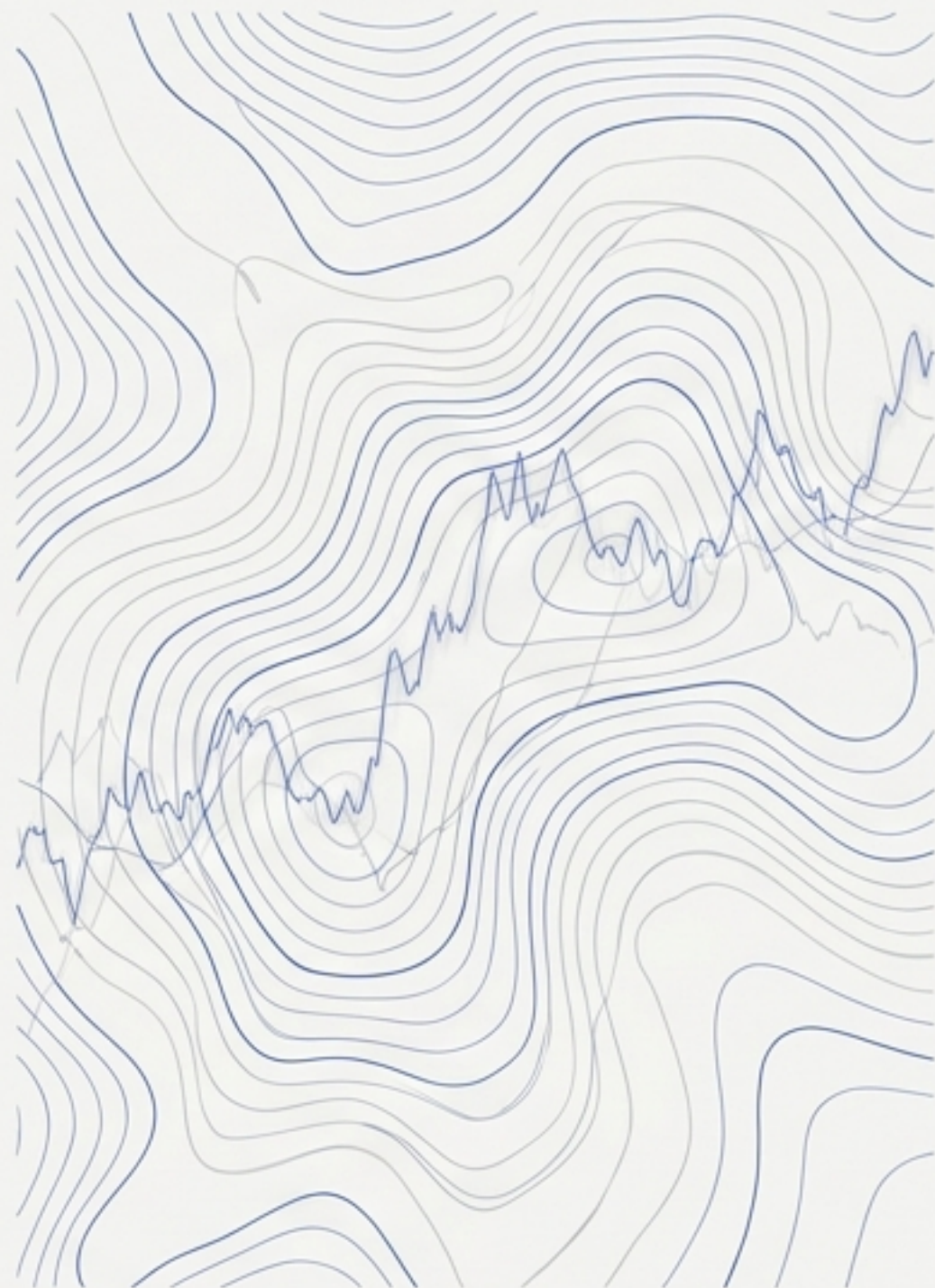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대형주 쏠림과 AI 모멘텀의 변곡점

국내 증시 반등, 글로벌 FICC 변동성,
그리고 다가오는 빅테크 실적 분석



핵심 관전 포인트



외인·기관 순매수 폭발

코스피 3%대 급등 건인.
개인 매도세 속 '포모(FOMO)'
장세 형성. 외·기관 매수 세력
지속 여부가 향후 흐름의 핵심.



미국 증시 AI 딜레마

주요 3대 지수 보합권(+0.00%)
블랙록 ETF 4조원 유입과
사상 최대 AI 공매도 잔고의
팽팽한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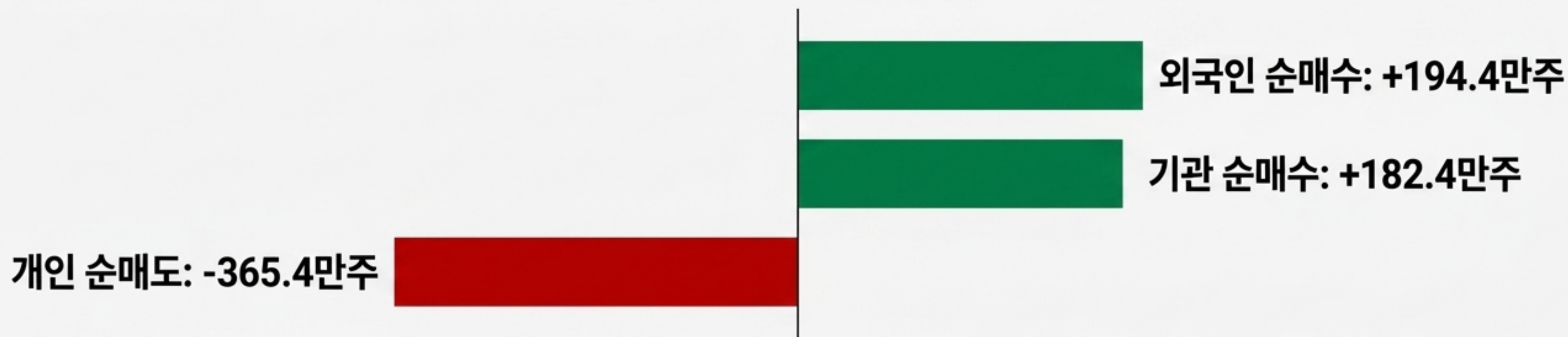
매크로 압력 (환율 & 유가)

미·이란 긴장으로 WTI 원유
83.49달러 돌파. 10년물 국채
상승(4.588%) 속에서도 원화는
강세(1,477.23원)를 보이는
복합적 단기 로테이션 환경.

국내 증시: '포모'가 '조모'된 반등장, 스마트 머니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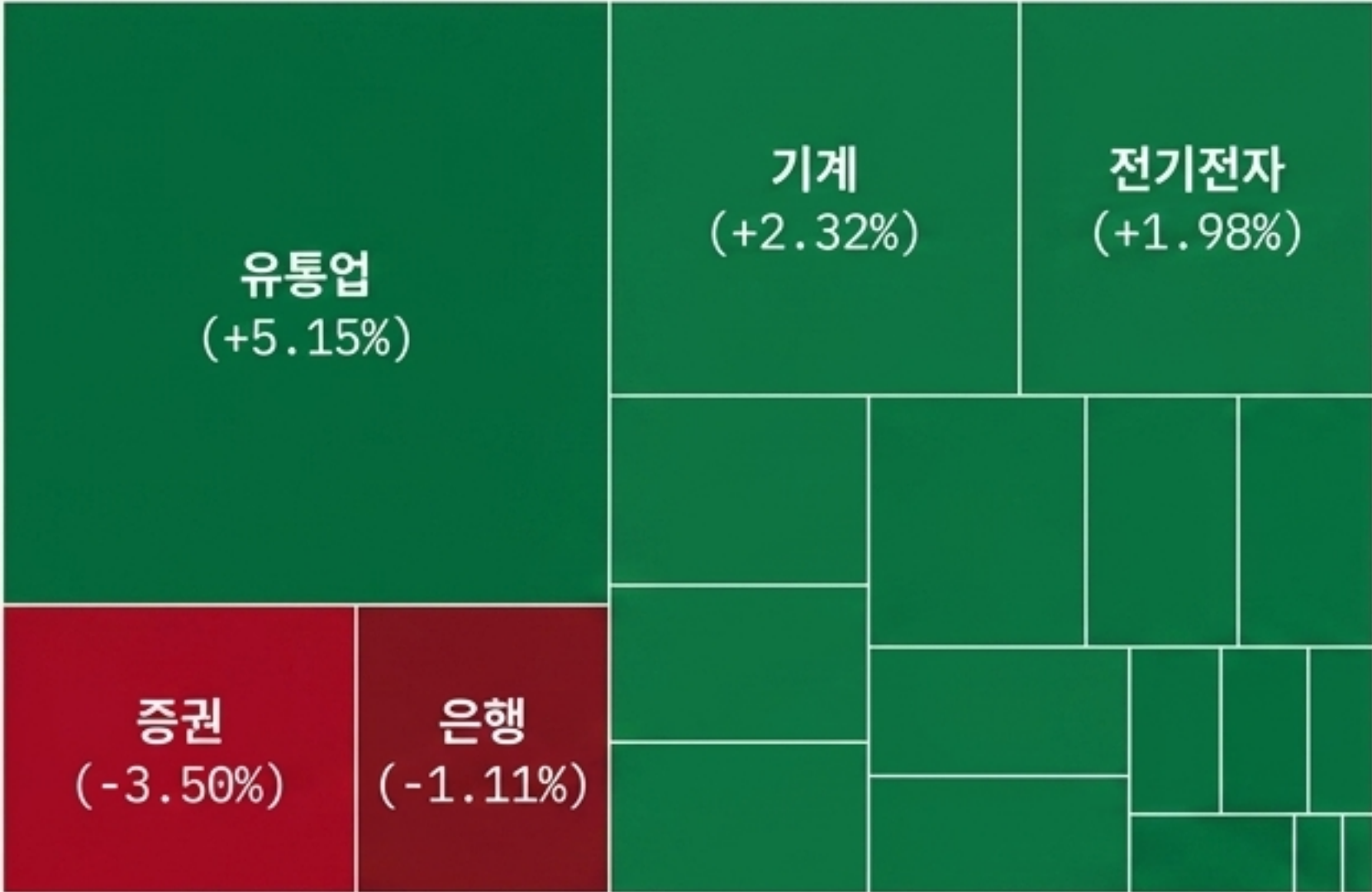
KOSPI 6,747.95 **+3.56%**

KOSDAQ 753.34 **+0.49%**



연이은 급락 후 반도체 수출 호조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맞물리며 코스피가 6700선을 회복했습니다. 6000선 바닥 전망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흡수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섹터 로테이션: 대형 반도체 쏠림 현상과 금융주 약세



Top Movers Data Table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시가총액
삼성전자	259,000원	+6.15%	1514.2조
SK하이닉스	1,836,000원	+4.08%	1308.5조
삼성바이오로직스	1,395,000원	+3.72%	64.6조

자금이 철저히 대형주, 특히 반도체 투톱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지수 반등의 이면에는 ‘대형주 쏠림의 경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섹터 재배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스트리트: AI 모멘텀의 교차로, 정체된 지수 아래의 격전

S&P 500 (+0.00%)	NASDAQ (+0.00%)	DOW JONES (+0.00%)



표면적인 지수는 변동이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기술주 모멘텀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롱/숏 세력 간의 포지션 구축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 아시아의 기술적 반등 vs 유럽의 급락

Asia



일본 닛케이 225: **+3.2%**
(엔화 약세 및 폭락 뒤 기술적 반등)

중국 상하이종합: **+0.45%** /
선전성분: **+0.62%**

호주 ASX 200: **+0.52%**
(자원주 중심 상승)

AI 머니 유입과 유가 상승세 완화가 아시아 증시 견인.

Europe & HK



독일 DAX: **-5.73%**

홍콩 항셱: **-5.73%**

방산주 강세(우크라 평화협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하방 압력 지속.

글로벌 투자은행(JP모건, UBS)이 '반도체 매도 마무리'를 선언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디커플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FICC 매크로 네트워크: 지정학적 파동과 안전자산의 연쇄 반응

미·이란 무력충돌 긴장 고조

WTI 원유 급등 (\$83.49, +\$2.62).
'120달러 전망' 대두 및 한국 정부 최고가격제 강화 검토

중동 리스크 + 위험 회피

안전자산 선호. 금값 반등 (\$500, +\$18).
비트코인 ETF 유입 지속 (\$67,350, +\$1,240)

FOMC 매파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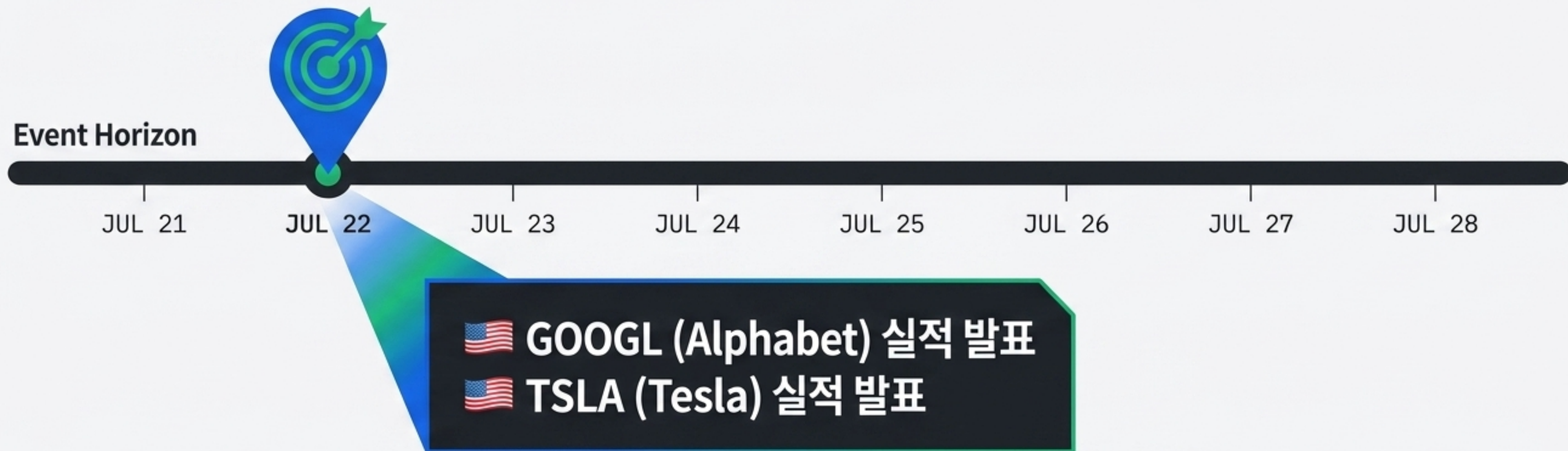
미 국채 10년물 상승 (4.588%, +5bp)

유로 강세 및 달러 인덱스 약세 (0.5, -0.32)

원화 강세 전환 (원/달러 1,477.23원, -5.30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며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유발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에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에 유리한 환율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촉매제: 빅테크 실적 결정할 다음 방향성



국내 증시는 외국인 주도로 강한 반등을 이루어냈으나, 진정한 추세 전환의 시험대는 내일(22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공매도가 누적된 미국 AI 섹터의 향방이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가이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포지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